

# 김강우 “새해전야’ 설날 앞두고 개봉 감개무량”

이혼 4년차 ‘자만추’ 형사 ‘지호’ 역할 맡아

“파마머리 매번 현장에서 고데기로 맡아”

“홍지영 감독, 큰 누나 같아...인간적 신뢰”

“결혼, 두번은 안하고파...함께 탑승는 과정”

“개봉하게 돼 감개무량하죠.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영화가 기록제가 돼서 다시 많은 분이 극장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배우 김강우는 2일 화상 인터뷰에서 ‘새해전야’ 개봉을 앞두고 “새해전야(구정)에 개봉해 그래도 기쁘다”고 말했다.

‘새해전야’는 지난해 12월 개봉을 예정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을 미뤘다.

“최근 영화들이 운명을 알 수 없는 블랙홀 속에 빠져 있잖아요. 언제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데, (개봉해) 기쁘죠. 지난해 힘든 일이 많았는데 밝은 영화를 보고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해전야’는 인생 비수기를 끝내고 새해엔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은 네 커플의 두려움과 설렘 가득한 일주일일을 그렸다.

취업, 연애, 결혼 등 누구나 경험하고 겪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고민을 네 커플의 이야기 속에 담았다.

김강우는 극 중 이혼 4년차로 이른바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내세우는 형사 ‘지호’ 역을 맡았다. 꼬불꼬불한 파마머리에 혼자 집에서 커피를 먹으며 사립 냄새 나는 모

습을 선보인다. 강력반에서 민원실로 좌전된 후 이혼 소송 중인 ‘효영’의 신변 보호를 떠맡게 된다.

김강우는 “살아있는, 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다. 때문에 쓰인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했다”며 “저를 진지하고 무거운 캐릭터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화로 조금 희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혼 4년차 형사 ‘지호’ 역...‘유이나, 목소리 만 들어도 기분 좋아’**

지호의 포인트인 파마머리는 당시 드라마 ‘99억의 여자’ 촬영과 겹쳐 매번 현장에서 고데기로 맡았다고 했다.

“강력반 형사라고 항상 무거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공상맞은 모습도 나오는데 생활적인 모습을 넣으려고 홍지영 감독님과 재밌는 상상을 많이 했어요. 외적으로도 감독님이 저를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 싶어 했죠. 당시 드라마는 항상 힘주고 연기하며 심각했는데, ‘새해전야’는 편하게 놀듯이 연기해서 촬영하는 길이나 순간순간이 좋았어요.”

홍 감독의 ‘결혼전야’(2013)에 이어 다시 ‘새해전야’에 출연한 김강우는 대본을 보지 않고

바로 출연을 결정했다. 그는 “감독님에 대한 믿음과 가족 같은 마음이 있다”며 “(제작사인) 수필름과도 좋은 관계”라고 밝혔다.

“제가 ‘결혼전야’를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6~7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인물은 다르지만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해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결혼전야’ 때는 결혼 하기 직전의 설렘과 어설름이 있었다면, ‘새해전야’ 캐릭터는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어스스러운 삶을 살아왔죠. 저 역시 같은 시간을 보낸 기분이에요.”

홍 감독에 대해선 “큰 누나 같다”고 했다. “연출과 배우의 관계를 떠나 인간적으로 느끼는 신뢰는 감독님의 인품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남편인) 민규동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삶의 방식이나 타인에 대한 태도가 존경스럽죠. 열린 귀를 갖고 있고 배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포착하고, 배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상대 역인 ‘효영’을 연기한 유이나와는 즐겁게 촬영했다고 전했다. “항상 웃으면서 촬영했어요. 배려심 있고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분이잖아요. 이전부터 팬이었고 함께 로맨스 장르를 찍어보면 재미있겠다 싶었죠. 매순간이 재밌었던 에피소드였어요.”

지호와 효영은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간다. 김강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사랑 이야기”라며 “이혼의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 조금은 많아지는 거 같아요. 지호와 효영은 살아온 시간이 있어 벽을 빨리 치지만, 순수함도 남아있어요. 저희 영화가 다양성을 담고 있는데, 타인에 대한 이해가 지금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멜로 영화 촬영 아내 눈치 안봐...‘결혼 10주**



**년, 매일매일 같이 탑을 쌓아가는 기분”**

멜로 영화 촬영에 아내 눈치를 보지는 않았냐는 물음에는 “안 봤다”고 답했다. 그는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멜로 영화를 찍을 때 아내 눈치를 보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강우는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 눈치를 볼게 뭐 있겠나. 가장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고, 멜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며 현실적인 배우의 모습을 보였다.

극 중 이혼한 아내와 쿨한 통화를 하는 장면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어떤 톤으로 해야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했다는 것. 김강우는 결혼에 대한 질문에는 “한번은 해보면 좋은 것 같다. 두 번 하고 싶지는 않다”고 웃으며 말했다.

“제가 작년에 결혼 10주년이 됐어요.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같이 탑을 쌓아가는 기분이에요. 반죽해서 벽돌을 만들고 그걸 하나 올리고. 또 어떤 날은 반죽이 잘 안 돼서 예쁜 모양이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 사람이 힘들어서 혼자 쌓기도 하고, 결혼은 탑을 쌓아 올라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김강우의 이번 새해전야는 어땠을까. “크리스마스 때부터 참 분위기가 안 났다”며 “한편으로 집에 가족들과 있는데 더 오붓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더라”고 돌아왔다.

“더 돈독해지고 소중해지는 느낌도 있고, 가족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새해라기보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쪽 이어진 느낌도 있어요. 지난해 저 역시 열 달 이상을 쉬게 돼 힘들었는데, 올해는 쉬지 않고 일하려고 해요.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겠고,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 블랙핑크 온라인콘서트, ‘팝 본고장’ 미국서 많이 봤다...19.2%

‘더 쇼’ 멤버십 가입자, 약 28만명

그룹 ‘블랙핑크’의 첫 온라인 콘서트 ‘더 쇼 (THE SHOW)’가 미국에서 19.2% 판매되며 가장 높은 시청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개최된 블랙핑크의 첫 라이브 스트림 콘서트 ‘YG 팝 스테이지(PALM STAGE) - 2021 블랙핑크 : 더 쇼(BLACKPINK: THE SHOW)’의 멤버십 가입자 수 1위 국가는 미국이었다.

세계 최대 음악시장인 미국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YG는 “블랙핑크의 주류 팝 시장 내 막강한 존재감과 인기를 보여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이어 태국, 필리핀, 일본, 멕시코,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캐나다, 영국 순으로 다양한 국가가 뒤를 이어 블랙핑크는 글로벌 영향력을 뽐냈다.

이번 블랙핑크 ‘더 쇼’ 멤버십 가입자는 약 28만명이다. K팝 걸그룹 라이브스트림 콘서트 최다 관객수다.

아울러 블랙핑크의 유튜브 구독자 수도 가



파르게 증가했다. 공연 개최 소식이 발표된 이후 무려 270만여 명이 늘어 현재 5680만명이다. 전세계 여자 가수 중 1위이자 6070만명으로 전 세계 1위 가수인 저스틴 비버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공연 당일 해시태그 #THESHOWToday(더

쇼투데이)는 글로벌 SNS 실시간 트렌딩 최상위권을 수놓았다.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올랐고 블랙핑크 4인 이름이 10위권 내를 모두 장식했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블랙핑크 ‘THE SHOW’ 관련 해시태그가 100만을 돌파했다.

## 이민정, 데뷔 후 첫 예능 MC...tvN ‘업글인간’

신동엽·김종민·딘딘·승희와 호흡

tvN 새 예능 ‘업글인간’이 오는 3월 방송된다. 신동엽, 이민정, 김종민, 딘딘, 승희가 MC로 나선다.

‘업글인간’(가제)은 어제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내가 되기 위해 크고 작은 불편함에 직접 마주하고 도전해보는 불편 챌린지에 관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신동엽, 이민정, 김종민, 딘딘, ‘오마이걸’ 승희가 MC로 나선다. 특히 이민정은 데뷔 이후 첫 고정 MC에 도전한다.

연출을 맡은 손창우 PD는 “출연자들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불편함에 도전한다.”

이들의 성장통을 함께 지켜봐달라”며 “시청자분들도 약해진 새해 다짐을 되새기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조병규 “경이로운 소문” 이후 용돈 25만 원으로 올라”

배우 조병규가 SBS 파워FM라디오 ‘김영철의 파워FM’에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밝혔다. 조병규는 4일 ‘김영철의 파워FM’에 출연해 일주일마다 용돈을 받는다고 말했다. “현재 통장 잔액이 6447원보다 많냐”는 DJ

김영철의 질문에 조병규는 “내가 번 돈을 부모님이 관리해 준다”며 “매주 화요일 용돈을 타서 쓴다/ 금요일 토요일 정도면 그 정도 잔액이 남는다”고 답했다. 조병규는 2019년 방송된 MBC TV 예능 프

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도 통장 잔고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조병규의 용돈도 올랐다. 조병규는 “드라마 ‘스토브리그’ 끝나고 용돈이 20만원으로 올랐다”며 “경이로운 소문” 이후 25만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내 돈에서 받는 돈이라 사치를 부릴 수 없다”며 “일주일에 25만원 이상 못 쓴다. 그 이상 쓰려면 부모님의 허가가 떨어지려 한다”고도 했다.



## ‘K드라마 열풍 이어가’...tvN 드라마 라인업

tvN가 2021년 드라마 라인업을 공개했다.

2~3월 첫 방송되는 월화 드라마 ‘루카 : 더 비기닝’, 새 수목 드라마 ‘마우스’, 새 주말드라마 ‘빈센조’다.

1월 첫 방송된 ‘루카 : 더 비기닝’은 특별한 능력 때문에 쫓기게 된 ‘지오’(김래원)가 유일하게 그를 기억하는 강력반 형사 ‘구름’(이다희)과 함께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스펙터클 추격 액션극이다.

20일 첫 방송되는 ‘빈센조’는 배우 송중기, 전여빈, 옥택연, 유재명, 김여진, 곽동연, 조한철 등이 출연하는 tvN의 최고 기대작이다.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에 오게 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가 베네딕토 독종 변호사와 함께 악당의 방식으로 악당을 쓸어버리는 이야기를 그린다.

3월3일 첫 방송되는 새 수목 드라마 ‘마우스’는 자타 공인 바른 청년이자 동네 순경인 정바람(이승기)과 어린 시절 살인마에게 부모를 잃고 복수를 향해 달려온 무법 형사 고무치(이희준)가 사이코패스 중 상위 1%로 불리는 가장 악랄한 프레데터와 대치 끝,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모습을 그려낸 본격 ‘인간헌터 추격극’이다. 이승기의 3년 만 복귀작이다.

상반기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시즌2로 돌아오고 ‘나빌레라’ ‘간 떨어지는 동거’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마인(Mine)’이 전파를 탄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도 주 1회 편성으로 안방극장에 돌아올 예정이다.

박인환, 송강, 나문희, 홍승희 등이 출연하는 ‘나빌레라’는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나이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과 스물 셋 꿈 앞에서 방황하는 발레리노 채록의 성장드라마를 그린다. 인생 끝자락에 있는 일흔 노인인 인생을 막 시작할 스물셋 청춘의 교감과 꿈의 꿈을 향한 동행이 펼쳐진다. 네이버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간 떨어지

는동거’는 장기용, 이혜리, 강한나, 김도완, 배민혁 등이 출연해 기대감을 높인다. 999살 구미호 어르신 신우여와 콜라나는 99년생 여대생 이담이 구슬로 인해 알뜰결에 한집살이를 하며 펼쳐는 비인간적 로맨트 코미디물이다.

박보영, 서인국, 이수혁, 강태오, 신도현이 출연하는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는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존재 ‘멸망’과 사라지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 계약을 한 인간 ‘동경’의 치명적인 100일 한정 판타지 로맨스물이다.

‘마인(Mine)’은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것을 찾아가는 강인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전지 톱 배우이자 효원 그룹 둘째며느리 서희수를 맡은 이보영과 뽕속까지 성공 귀족인 여인 정서현 역의 김서형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너는 나의 봄’ ‘악마판사’ ‘지리산’은 하반기에 방송된다.

서현진, 김동욱, 윤박, 남규리가 출연하는 ‘너는 나의 봄’은 저마다의 일곱 살을 가슴에 품은 채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물에 모여 살게 되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악마판사’는 지성, 김민정, 진영, 박규영의 캐스팅을 확정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라이브 법정 쇼를 통해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드라마다.

올해 하반기 기대작 ‘지리산’은 광활한 지리산의 비경을 배경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미스터리물이다. 전지현, 주지훈, 성동일, 오정세 등 최정삼급 배우들이 열연을 펼친다. 전지현은 지리산 최고의 레인저 ‘서이강’ 역을, 주지훈은 비밀을 간직한 신임 레인저 강현조 역을 맡아 캐스팅 단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